[국제학부] 태국 문화체험 에세이

행정학과
201121908 조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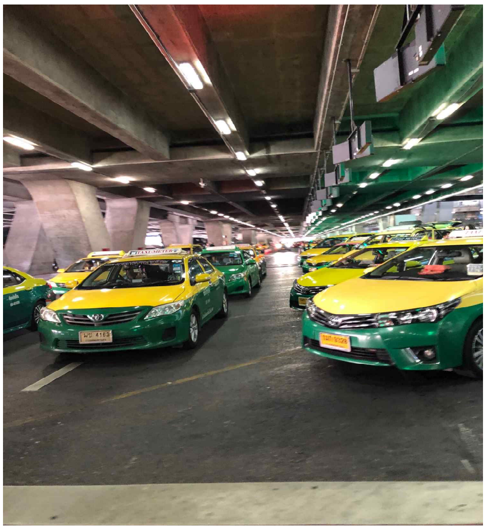
1. 참가 활동 내용 (사진 포함 가능)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명한 태국의 방콕을 방문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머리속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담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느낀 경험들을 위주로 하여 일정 순으로 써보자 한다.

<1 일차>

인천공항에서 다들 집합을 하여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조장을 통해서 인원을 확인했다. 이때 사전에 연락을 한번 주고 받았던 것이 도움이 되어 1 조가 가장 빠르게 인원을 체크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가장 빠르게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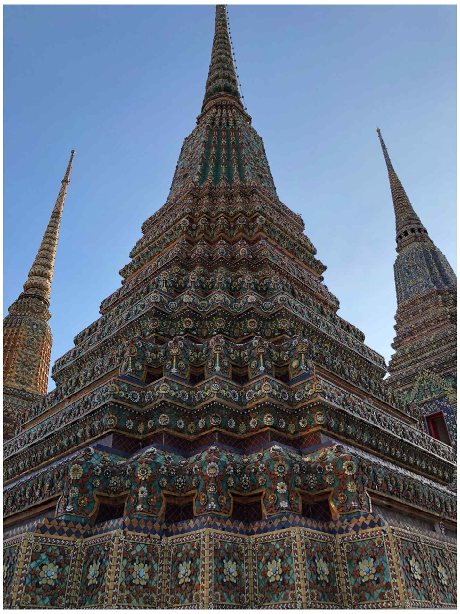
6 시간 정도를 날아서 태국을 도착 하였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지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했었기 때문에 뭘 따로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로 대기중이던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때 재미있었던 것이 처음 공항을 나오자마자 노란색과 초록색의 조합의 택시들이 모두다 도요타 차량이었다.

(사진)  이러한 택시를를 포함한 도로 위의 대부분들의 차가 도요타 사의 제품이었고 그 외에도 혼다 등의 일본 기업들의 자동차가 주를 이루었기에 어떻게 이정도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현지 가이드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비싼데다가 할부기간이 짧은 반면에 일본기업들은 10년 이상의 할수기간을 제공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긴 할부를 제공하는 일본기업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스에서 이러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즐겁게 '왓포 사원'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유적지는 왓포 사원이었다. 왕궁을 가는 것이 기존의 첫 일정이었지만 비행기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쉽게 가지 못하였다. 입장부터 재미있었던 것이 여자 관광객들의 하의가 너무 짧으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점이었다. 우리 일행중에서도 제한을 당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웃지못할 구경을 하였다. 사원을 들어오면서부터 작은 탑들이 곳곳에서 보인

다.

이 탑들은 승려들의 납골당이자 승려들을 기리는 기념비 역할을 하는 탑들이라고 한다. 탑 대해 설명해주신 분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탑들을 제작할 당시에는 태국에서는 이러한 문양에 쓰이는 재료들을 만드는 고유의 기술이나 형태가 없어서 중국의 자기의 조각들을 사용하여 탑들을 제작을 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사진)** 이러한 작은 탑 이외에도 4 개의 거대한 탑이 있었는데 이 4 개의 탑들은 1 대부터 4 대까지의 선왕들을 기리는 탑이라고 한다.



그 규모가 정말 컸고 멋진 탑이었다. 그리고 엄청 큰 석불을 보았다. 이 석불은 옆으로 누워있는데 흡사 아버지들이 집에서 쉬실 때 소파에 누워서 티비를 보실 때의 자세로 누워있다. 사실 이런 사찰을 가서 잘 놀라는 편은 아닌데 그 엄청난 크기에 정말 입이 벌어졌었다. 저 불상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꽤나 위압감을 느꼈고 동시에 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

았다. 그 동상을 사진으로 담기는 어려웠지만 그 웅장함, 특유의 애매한 미소 등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잊지 못할 것 같다.

왓포 사원을 구경한 뒤에 아직 적응하기 힘든 더위를 뚫고 수상보트를 타러갔다. 약간의 더위와 탁한 강물에서 보트를 탔기에 강의 풍경이 환상적이라거나 쾌적하여 기분이 좋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강 등에서는 보기 어려운 강 주변의 낮은 건물들과 그 사이에 한 두 개씩 우뚝 솟은 사원들 사이로 해가 지며 온 세상이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 황홀경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워서 잊기 힘들 것 같다.

현지 가이드해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말하던 방콕 시내의 교통 체증을 오래걸리지 않아 경험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10 분 이상을 한자리에 서있었던 것 같다. 쾌적한 버스 안이었지만 속이 정말 답답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견뎌서 먹게된 첫 현지식은 사실 많이 아쉬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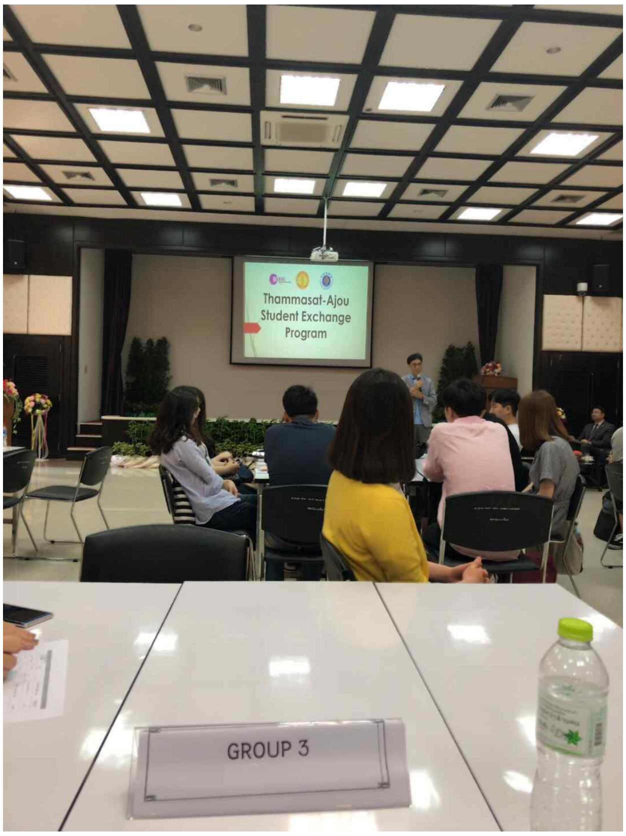
다. 입맛에 안맞는것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다음에 방콕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될 때는 이 음식점은 제외되는 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2 일차>

방콕에서 보낸 날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많이 간 날이다. 또한 일정을 소화하는 기간동안 가장 덥다고 느낀 날이었다.

아침을 먹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동하여 타마삿 대학에 도착하였다. 아직 개강한지 2 일차였기 때문에 학교는 비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사실 터무니없이 넓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정말 많이 넓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학은 타마삿 대학의 4 개의 캠퍼스 중에서 가장 큰 캠퍼스이며, 나중에 들었지만 태국에서 2 번째로 큰 캠퍼스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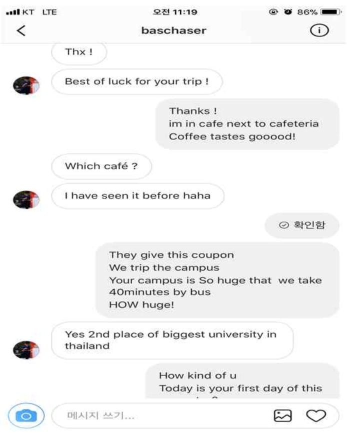
타마삿 대학 측에서 준비한 강의실로 들어가자 타마삿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Group3 에 소속되어 토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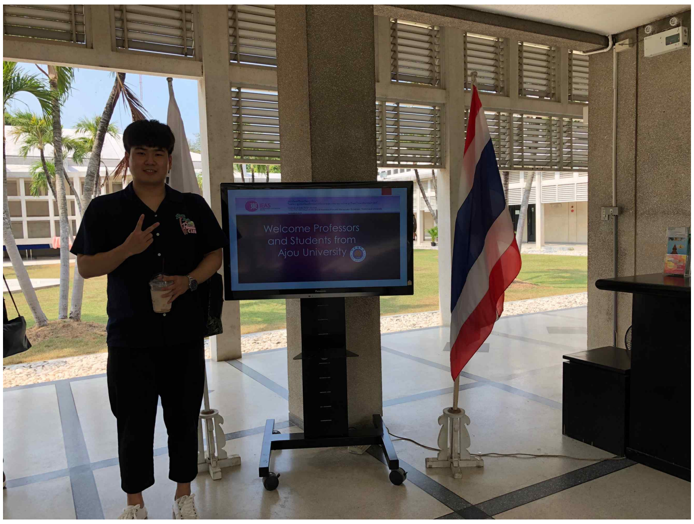
우리 조에 있었던 태국 친구들은 Chang 과 Bas 라는 닉네임으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태국인들은 실명이 길어서 많은 경우 간단한 닉네임으로 자신들을 소개한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회화가 참 부족함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쉽지는 않았지만 사전을 찾고, 손짓 등을 이용하며 웃으면서 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었고 토론수업을 마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SNS 를 공유하여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 

(SNS 캡쳐 사진). 이후 캠퍼스 투어를 잠시 했는데 넓다고는 생각했지만 학교안에 올림픽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을 정도로 상상초월하게 학교가 넓었다.



넓디 넓은 타마삿 대학 방문 일정을 마치고 로얄 드래곤이라는 큰 식당을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 곳의 음식은 전날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먹기 수월하였다. 마치 호수 위에서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고 건물들도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입도, 눈도 즐거웠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은 먹고는 아시안티크라는 유명한 야시장을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가지고 혼자서 이것저것 물건을 구경하고 다녔다. 처음으로 태국 상인들과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로 짧은 영어를 주고 받으며 흥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원하는 가격을 두들기면서 야시장을 구경하였다. 또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 직전에 운이 좋게도 꽤 규모가 큰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서 기분좋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3 일차>

3 일차 출발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었다. 여유롭게 준비를 하여 아유타야로 이동하였다. 하필 이날 새벽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는데 이 때문에 우산과 우비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중간에 다같이 버스에서 내려 우산을 사러가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파인 여름별궁을 투어하려고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비가 그쳤다. 비록 날씨는 어둑어둑 했지만 비가 온 뒤여서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궁전의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들과 서양에 있음직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니 잠시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인 태국이 아니라 다른 유럽지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궁전을 뒤로하고 왓 마하탓(Wat Maha That) 사원으로 이동하였다. 전쟁과 화재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느낌은 정말 웅장했으며 압도적이었다. 지금까지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멋지고 더욱 웅장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했다. 이 사원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머리가 잘려 있는 불상들이다. 대부분의 불상들이 머리가 잘린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밤에 보면 꽤나 오싹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찍고나면 실제의 웅장함과 그 느낌이 사진에 온전히 담기지 않아서 사진을 찍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머리에 더 담으려고 했다.

 마지막 유적지 탐방지인 왓프라시신펫 사원은 왓 마하탓 근처에 있었다. 왓 마하탓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이 사원에 있는 탑은 그 모양이나 느낌이 더욱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었다.

두 사원 모두 많은 부분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하루 빨리 보수공사가 완료된 두 사원을 보고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방콕에 무지한 나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카오산 로드로 향했다. 자유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어느 곳보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활기가 넘쳤다. (사진) 다른 곳과는 달리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수 많은 길거리 음식, 5 걸음 이내로 걸어오는 호객행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신기한 술집들,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마사지들, 처음보는 기괴한 음식들, 맥주를 들고 다

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외국인들까지 정말 모든 것이 재미있는 광경이었다.

카오산 로드에서의 재미있는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다. 혼자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근처에 있는 TERMINAL 21 을 가서 구경도 하고 바로 연결되어있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1 정거장 거리에 있는 다른 쇼핑몰로 이동도 해보았다.(사진) 사실 태국의 지하철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왠만한 지하철보다도 더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놀랐다. (사진)

구경을 마치고 숙소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들어오며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며 숙소 근처 마사지 샵에서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가격대비 정말 훌륭한 마사지와 서비스를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4 일차>

방콕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이른 모닝콜을 받은 날이었다. 모든 짐을 들고 나와야 했기에 가장 정신없는 아침 준비 시간이기도 했다. 부랴부랴 준비를 마친 뒤 기찻길 양 옆으로 시장이 형성된 위험한 시장(매끌렁 시장)으로 이동하였다. 상상이 잘 안됐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다. 시간대를 잘 맞추면 기차가 지나갈 때 시장의 천막들이 순식간에 걷히는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시간 관계상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너무 궁금하여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찾아보니 실제로 봤으면 '진풍경이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갔던 다른 시장들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했다. 먹을 것도 싸고 다양한 것들을 팔아서 아이스크림, 이름 모를 빵같은 음식도 사먹었고 동전지갑과 에코백 등도 이곳에서 많이 구입하였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이었는데 이전 일정들에서도 날마다 강에서 보트를 타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할거라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보트를 타는 일정중에서 이 수상시장의 시간이 가장 이색적이고 재미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또 활기가 넘치는 수상시장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었다.(사진) 강 위에서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준비한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중 한 곳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콕의 젊음의 거리인 씨암 파라곤, 씨암 스어를 들렸는데 마치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생각났다. 규모는 더 큰데 상점들이 더 오밀조밀 자리하고 있어 구경할 것들이 더 많았다. 구경하는 중에 한국에서 최근 많이 인기가 있는 ALAND 도 이곳에 입점해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

데 왠지 모르게 반가워서 잠시 들러 구경을 했다. 짧은 시간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며 구경을 하고 일정을 마쳤다. 저녁식사로 지난번에 미뤄졌던 삼겹살을 먹었다. 여기서는 소주를 간단하게 먹으며 함께 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나서 공항으로 향하며 방콕 탐방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사실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을 했기에 여러모로 긴장을 많이 했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불참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정말로 이번 첫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는 나에게 훌륭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지원하고 싶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부족한 영어 실력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건 타마삿 대학의 친구들과 토론 수업을 할 때였다. 유창하게 말하는 두 외국인 친구 앞에서 나는 단어들을 연결해가며 겨우 대화를 이어나갔다. 물론 그 태국 학생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내가 이런 실력을 위해 지금까지 영어공부를 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토익, 토플과 같은 시험영어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건 외국에서건 어느 경우에도 내가 나의 의견을 온전히 전달 할 수 있도록 회화공부에도 힘을 쏟아야 함을 느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더 쌓아 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실 막연하게 국제학부의 전공에 대해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지원하였는데 더 구체적으로 국제학부의 각 전공 수업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김 ry 수님, 김한성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며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단 두 교수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학부의 교수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다음 학기에 국제학부 수업을 듣고자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정이 정말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줬다는 것을 군데군데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식사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태국이라는 나라 특히 방콕이라는 도시가 교통체층으로 악명이 높은데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이 일정과 유사한 방향이 아닌 완전 반대 방향이거나 너무 먼 곳이 있어서 일정을 소화하는 시간보다 도로 위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점은 조금 수정을 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짜면 좋을 것 같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프로그램과 같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가능한 많이 지원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공지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보면 학교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제한 안에서 가능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알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학기중에는 정말 많은 공지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그 수 많은 공지사항들 중에는 자격이 되는 혹은 자격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각자의 계획과 목표에 맞게 시기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혹은 계획과 목표가 없더라도 한번쯤 지원해볼 수 있도록 꾸준히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겁먹지 마시고 눈치보지 마시고 충분히 즐기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그냥 밋밋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이왕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즐기면 스스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민망할 때도 있고 의사소통 등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 시간이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의 답답함에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